



John 16

요한복음 16
Tape #8084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John chapter sixteen and we continue our glorious journey through the Bible.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펴고, 성경을 섭렵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여행 길을 계속하도록 하자.

Jesus begins the sixteenth chapter with the words, 예수께서는 16장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16:1),

He ends the chapter with the very same words,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As we have shared with you, from chapter thirteen we are taking a rather thorough look at the last evening that Jesus had with His disciples. It began with the passover supper with His disciples and the discussi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dinner and after the dinner. And then it moved in chapter fifteen to their walk from the site of the passover supper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nd so chapters fifteen and sixteen seem to be spoken by Jesus to His disciples as they're on the way to the garden of Gethsemane. 그런데 그분은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3장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저녁 장면을 상당히 철저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그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하여, 식사하시는 동안과 식사 후에 이어지는 토론으로 발전한다.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면,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신다. 그러므로 15장과 16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하다.

It is interesting that John gives us so much insight in this one evening of Jesus. It takes up several chapters. In fact, almost a third of the gospel of John is taken up in this one evening. John at the end of the book said, "I suppose if everything was written that should be written concerning Him, that all of the libraries in th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things that could be written concerning Jesus" (John 21:25). And so, we sort of get an example of that in just the one evening that takes up several chapters of John's gospel. 요한이 이 저녁 사건을 아주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무려 일곱 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요한복음의 거의 1/3이 바로 이 저녁 때의 이야기로 메워져 있다. 요한은 이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 21:25).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일곱 장을 차지한 이 저녁 사건에서도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As we pointed out, it's sort of a conversation, the disciples are asking questions and Jesus is giving them answers. And then He is just instructing them. Instructing them mainly about the fact that though He is going away, they will not be without help. The Holy Spirit is going to come. It's not going to be easy. The world is going to hate you. You're going to be going through some heavy trials. "These things," He said, "have I spoken unto you,"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것은 일종의 대화이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다. 기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셨다. 그들에게 하신 교육은, 비록 그분이 떠나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도울 자 없이 내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이르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that you should not be offended (16:1).

Expect these things. Don't think that the world is going to hail you as a champion. They're going to hate you, Jesus said. So I've told you these things that you won't be offended because,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라. 세상이 너희를 반색하며 반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They're going to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 yes, the time is coming, that whosoever kills you will think that he is doing God service (16:2).

And this was true. The Jews felt that they must stamp out this new sect. Paul the apostle, as he is recounting to Agrippa his conversion, he said, "I verily thought with myself, that I ought to do many things contrary to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Which thing I also did in Jerusalem: and many of the saints did I shut up in prison, having received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and when they were put to death, I gave my voice against them. And I punished them oft in every synagogue, and compelled them to blaspheme; and being exceedingly mad against them, I persecuted them even unto strange cities" (Acts 26:9-11). Paul speaks of his own persecution, thinking that he was doing God's will. He was serving God in his endeavor to destroy Christianity.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였다.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종파를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행 26:9-11).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고 말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느꼈다는 말이다.

We do read that when Stephen was stoned that Paul was consenting or voted for his death. And he's telling Agrippa that he had voted for the death of many of the Christians.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찬동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So these things will they do unto you,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nor me (16:3).

This is a very interesting statement as Jesus is speaking about the religious Jews who were, they felt, serving God. Today quite often, you will hear people talking of the Jews and their religion. I have had them ask me this. They said, My family worships God. We go to synagogue every sabbath. We observe sabbath. We say the prayers. We keep kosher. Do you mean that just because we do not believe in Jesus that we are going to be lost because we worship God according to the traditions of our fathers?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느꼈다는 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들과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It's interesting to me that those Jews in Jesus' day were even more obedient to the law than the present day Jews. They were offering sacrifices for sins. The temple was still standing and the priests were still making the sacrifices and the offerings. But Jesus said concerning those Jews who were going to temple, who were offering their sacrifices, who were going through the forms of worshipping God, that "they really didn't know the Father, nor Jesus." Interesting statement. With all of their religious activities, they really didn't know the Father.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라는 점이 내게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들은 늘 속죄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들이 언제나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 희생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아버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며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니라." 흥미로운 말씀이다.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It's possible that your religion can be a matter of rote. A matter of ritual. A matter of going through motions but not really knowing God. Paul testified of the Jews of his day, he said, "I testify of them they have a zeal for God, but not according to knowledge" (Romans 10:2). And "having a form of godliness" (2 Timothy 3:5). But that's all it is, is just a form of godliness.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판에 박힌 것이 될 수가 있다. 의례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몸만 예식에 참석할 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 바울은 자기가 살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롬 10:2).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 (딤후 3:5).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그건 그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었다.

Paul writing to the Romans said "when they knew God, they did not glorify Him as God, neither were they thankful" (Romans 1:21). And so here Jesus is saying, "They're going to think that they're doing God's service when they kill you. but they really don't know the Father and they don't know Me."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1).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그와 유사한 의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But these things have I told you, that when the time shall come, you will remember that I told you of them. And these things I didn't say to you at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 (16:4).

The revelation of God to our hearts is a progressive revelation. And Jesus did not let them know at the beginning all of the persecution that they would face for His sake. The reason why is that He was with them to shield them and protect them. When they were cornered by the Pharisees and they were being asked difficult questions, they didn't have the answers. Jesus came and He rebuked the Pharisees, more or less said, What are you talking to them about? He stepped in and He defended them. But He's not going to be there. I'm going away. You're going to be without Me. 우리 마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핍박에 대해 처음부터 모두 알려주시지는 않았다. 이 이유는 그분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계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궁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그들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마다 예수님이 나서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곤 하셨다. 그분은 "너희는 저들과 무엇에 대해서 쟁론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개입하셔서 제자들을 옹호하곤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곳을 떠나실 것이다.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But you're not going to be without the help of God because I'm going to pray to the Father. He's going to send you the Comforter, "the Spirit of truth, and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John 16:13). He will be with you to help you. But you're going to be going through some very severe persecution and severe testings and you're going to be giving your life. They're going to take your lives thinking that they are serving God. 그러나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요 16:13)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몇몇 아주 심한 핍박과 심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며, 너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의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But now I go my way to him that sent me (16:5);

This is the reason why I'm telling you these things because I'm going back to God,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니 곧,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and none of you asks me, Whither goest thou (16:5)?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because earlier in the thirteenth chapter, when Jesus said I'm going away and where I'm going, you can't come now. Peter said, Where are you going? Whither goest thou that we

can't come now? And so Jesus when He said, None of you asks, Where are you going? Evidently, there is a different slant of understanding or meaning here in what Jesus is saying than the question that Peter asked earlier. 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앞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려는 곳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 하였다: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로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좇아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 앞서 베드로가 질문 한 내용과는 뭔가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But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unto you,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16:6).

Back in the fourteenth chapter, He said,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m going to My Father" (John 14:28). And now He's saying,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And yet He said, "Don'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John 14:1). And then He said, "Let not your hearts be troubled, neither let them be afraid" (John 14:27). And so they are really in a quandary right now. They don't understand what He is saying. They still cannot accept the cross. They still cannot accept His death that He's going to be going away from them. They can't accept that. They are still thinking that the kingdom is going to be set up very soon, right away.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요 14:28).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참으로 당혹스럽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머지 않아 곧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

It's interesting that after His resurrection and the forty days that He was with them, on and off, ministering to them, He then ascended into heaven and just before He ascended into heaven, He told them to go into Jerusalem or back to Jerusalem. They were at Bethany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He said, Now go back to Jerusalem and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I've been talking to you about because in a few days, you're going to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They said,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Is it just a few days away? Are we almost there? They were still expecting the immediate establishing of the kingdom of God. This time period that we are presently in, in which the Lord is gathering out from the Gentiles a church, the body of Jesus Christ, they didn't understand this time gap. "Jesus said, It's not given to you to know the times or the seasons, that are appointed by the Father. But you're going to receive power,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cts 1:4-8).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간 함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수시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 위에 있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해 온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주여,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돌이키실 때가 바로 이 땀니까?"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됩니까? 거의 때가 다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날이 임박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께서 이방인들로부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을 불러모으시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행 1:7,8).

So "I'm going my way to Him that sent Me; none of you asks where are You going, but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necessary 필요하다] for you that I go away: for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16:7).

As long as Jesus was in a body, He was limited by the body to the material things of the universe, even space and time. When Jesus ascended into heaven leaving space and time, again into that fourth or fifth dimension, now in that eternal timeless, spaceless existence, He can be everywhere at once. “Lo, I am with you always” (Matthew 28:20), He said. Some of you are going to be in Rome. Some of you will be in India. Some of you will be in Africa. But I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are. “Where two or three of you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Matthew 18:20). 예수께서 몸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그 몸으로 인해서 우주의 물질적인 것들의 제한을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늘로 오르셔서, 4차원이나 5차원의 세계로 회귀하시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존재가 되신 지금 그분은 어느 곳이나 즉시 거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너희 중에 일부는 로마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일부는 인도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 중 몇몇은 아프리카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The Lord is with us here tonight because He is spirit, and He is with us here but He is also with the other fellowships throughout the area that have gathered in His name to worship Him this evening. And He can be with all of us. He’s not exclusively with one fellowship. It doesn’t mean because He’s here, He can’t also be over on the other side of town. Or up the street. Because He is spirit. Now “it’s expedient that I go away [in order that I might be able to be with all of you, in order that the Comforter might come]: because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주께서 오늘 밤 여기에 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 저녁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의 모든 무리들과도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가 있으시다. 그분은 한 무리와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다른 곳에 계시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마을 저쪽 편에도 계시고 거리 저편에도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And when he is come, he will reprove (16:8).

Or convict or convince. This Greek word is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It is a word that is used in a court of law and that is to present the evidence to bring a conviction. He will convict,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할 것이다. 이 회랍어 단어는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증거를 제시하여 유죄 판결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분은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다.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16:8):

It becomes very interesting at this point because when we think of sin, we usually think of the overt 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us, we think of sin as lying or stealing or cheating or coveting or getting angry, losing our temper, and we think of those things when we think of sin. But Jesus said, 이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외부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 도둑질, 사기, 질투, 분노, 흥분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

Of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on me (16:9);

That, basically, is the damning sin. “All manner of sin and blasphemy shall be forgiven man,” Jesus said (Mark 3:28). He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God laid on Him the iniquities of us all” (Isaiah 53:6). He bore our sins. “God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2 Corinthians 5:21). Jesus bore Himself every sin you have ever or will ever commit. He is God’s only provision for sin. 죄는 기본적으로 파멸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막 3:28)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 (사 53:6).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고후 5:21).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리고 장차 지을 모든 죄를 친히 처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이시다.

All roads do not lead to heaven. There is only one wa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that's through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Strait is the gate,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few there be that find it. Broad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ere are many going in” (Matthew 7:13,14). 모든 도로가 하늘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

There is a constant pressure from the world to try to broaden the gate. We are accused of narrow bigotry. So often people say their major objection against Christianity is our narrowness and our bigotry to say that Jesus is the only way. And they would make Buddha a way. They would make Shintoism a way. They would make just being sincerely religious a way. Surely God will accept all. That's not what Jesus said. And the exclusiveness of Jesus offends people that there is only the one way. But there is only the one way. But He is God's only provision to take care of your sins.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타협 없는 고집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편협함과 외고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너무도 자주 듣는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건 편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부처도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도(神道)도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종교 생활만 착실히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길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배타성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 어찌 하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다.

When my Jewish friend asked me about his family who were so religious, I said, What do they do about their sin? You see, God made a covenant with Israel that they could, when they sin, bring a sin offering unto the Lord. He made the provisions for the covering of their sins by the offering of an animal sacrifice, the animal substituting for them, dying for them, so to speak, because of their sin. He had no answer except that they just seek to be good and that their goodness will over balance their evil. 나의 유대인 친구 하나가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해 주셨다. 말하자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자신의 선이 자신의 악을 능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The day of atonement, Yom Kippur, probably the holiest day in the Jewish calendar. That day when the priest would enter the holy of holies and offer the goat sin offering unto God for the sins of the nation. That day today for the Jew is a day of reflection. It is still a solemn day. But now rather than being forgiven and made righteous because of the sacrifice of the goat, they seek to be righteous by their good works. And thus, they sit and they reflect upon the goodness that they have done this previous year. And they vow and promise to seek to be good and to do nice generous things, hoping that their goodness will counter balance their evil. 유대인의 달력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은 아마도 속죄일 즉 욱 키프르 일 것이다. 그 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국민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 현대에서는 그 날이

반성하는 날의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엄숙한 날이다. 그 엄소 희생제물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이상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앉아서 자신들이 지난 해에 행한 선을 되돌아본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자신들의 선이 자신들의 악을 능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But Paul said,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Romans 3:20). Jesus is God’s only provision for sin. Thus the Holy Spirit testifies of sin. Jesus said, “Because they do not believe Me.” The only sin for which a person will be damned is the sin of rejecting Jesus Christ. Not believing in Him as your Lord and Saviour. Every other sin is forgivable. Every other sin has been borne by Christ. He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It leaves only one issue and that is, Jesus Himself. And as the question was asked by Pilate,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is the question that you must face and you must answer. To believe in Him is to be forgiven of your sins.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롬 3:20)라고 잘라 말하였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이다.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빌라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물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만 한다.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Jesus said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And he that believeth is not condemned: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John 3:16-18). So He testifies of sin. Not of the things that we do daily in missing the mark but basically of your refusal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God’s provision for your sin. Secondly, He convicts,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그러므로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 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대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Of righteousness (16:10),

Again Jesus said something strange. He said, “Of righteousness,”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또 다시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because I ascend to the Father (16:10),

Early in the ministry of Jesus, He said to His discipl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something that must have blown their minds. Because He said, “Un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20). If anybody could find entrance into heaven by works, by good works and by righteousness, it should b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cause they spent their whole lives trying to keep every little aspect of the law. Trying to live by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keeping the law. And they devoted their life to that.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해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는 데서 생겨나는 의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거기에다 쏟아 붓고 있었다.

Paul the apostle who was a Pharisee, in describing his life before he met Jesus, declared that he was a Pharisee of the Pharisees. “Concerning the law,” he said, “I was blameless.” He had a tremendous zeal for the law but he didn’t know the Father nor did he know the Son. But when he came to know the Son, then all of the credit that he had gained in his obedience to the law and the rituals, he said, “I counted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for whom I suffered the loss of all of the prestige and all that I had, but I counted all but refuse, that I might know Him.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and be found [he sai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but now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Philippians 3:5-9). So our hope for the future is that we might be accepted into the kingdom of God. That God will receive us into glory.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기 삶을 묘사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율법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었다”고 말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마어마했으나, 그는 아버지도 알지 못했으며 물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알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가 율법과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얻었던 그 모든 유익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 3:7-9).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It’s an interesting thing to me how that when anyone dies, we always want to think of them as being in heaven. They may live like the devil but when they die, we try to remember the good characteristics and hopefully, they are in heaven. We want to picture them in heaven. Why? Because that is our desire that when I die, I might be received by God into His kingdom, the eternal habitations of God. 어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가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흥미로운 일이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악마와 같이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장점만을 기억하고자 애를 쓰며, 그가 천국에 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한다. 왜 그럴까? 내가 죽을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천국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God has made provisions for my sins through Jesus Christ that when I die, I can enter into heaven. But what is the righteous standard that God will allow into heaven? And the righteous standard is Jesus Christ. His ascension into heaven was God’s declaration that this is the righteousness that I will receive into heaven. Anything less will not do. You have to b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You say, Impossible! Good, you’re learning. It’s impossible for me to b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and thus God has made the provision that He will account me righteous by my faith in Jesus Christ so tha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now accounted to me or imputed to me. And God imputes righteousness to those who believe. This is nothing new. We read, “And Abraham believed God and God ac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James 2:23). His faith in God was accounted by God to Abraham for righteousness.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해당된다. 그 외의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말할 것이다. 훌륭하다. 여러분은 잘 배운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겠다는 방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이전시켜 주신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약

2:23).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이다.

And so with u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rough faith which God imputes to me guarantees me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God. But anything less even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won't get you in. "Except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20). Bu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does exceed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that is imputed unto me and thus I am guaranteed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로 이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신다. 그보다 하급의 의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그리스도의 의는 저들의 의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그 의가 내게로 이전되었으므로, 이제 내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장된 셈이다.

The Holy Spirit will testify or convict,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Of judgment (16:11),

Not the judgment to come. We do know that there is a day of judgment coming.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and after that the judgment" (Hebrews 9:27). That judgment seat of God is mentioned by John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twenty. Jesus speaks about when He returns to the earth, then He will gather together the nations to judge them. And there is a day of judgment coming. People may think that they're getting by. They're not. One day, every man will stand before God, the books will be open, and the Bible says, Everything is naked before Him whom we have to do. You can't hide anything from God. You're an open book as far as your life is concerned. The beautiful thing though is by my believing in Jesus Christ, all of the negative things I've ever done have been blotted out, erased, forgiven. And my page just says, Righteou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at has been imputed to me because of my faith in Jesus. 이것은 다가올 심판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臺)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 돌아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때 그분은 천하 만국을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용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 앞에 낱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멋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저지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은 그저 "너는 의롭다"라고 말할 뿐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But Jesus isn't talking about the judgment to come but He's talking about the judgment of Satan that was to take place when He would die upon the cross. Now remember this is the evening before His death. Before noon, He will be hanging on the cross dying for the sins of the world. But by His death, He will be bringing judgment against Satan. 지금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나타날 사단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때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녁이었음을 기억하라. 다음날 정오 이전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사단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because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d (16:11).

Satan was called by Jesus the prince of this world here, and of course,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John. The Bible speaks of his ruling over the kingdoms of the earth. The kingdoms and the governments of the earth controlled and ruled by the powers of darkness.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nd powers, against the spirit forces that are in high places, the rulers of darkness" (Ephesians 6:12). But Jesus through the cross triumphed over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darkness. And Satan was

defeated as far as his ability to control the world and man any longer. It is only by man's consent that Satan can control his life. 여기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성경은 사단이 지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상의 나라들과 정부들은 어두움의 권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셨다. 사단은 패퇴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사단이 인간의 삶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동의 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Through Jesus Christ the power that Satan once had over me is broken. The power that Satan has held over you was broken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His death upon the cross. So that Satan can no longer reign or rule over you. His power is broken. And so the Holy Spirit testifies of that victory, that life of victory that we can know and experience through Jesus Christ by our believing in Him. We are empowered by Him and the darkness no longer holds sway over us. It is the expelling power of the stronger force, the darkness has been expelled by the light. And if you have Jesus Christ dwelling in you,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1 John 4:4). 과거에 나를 지배하였던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다. 여러분을 지배하였던 사단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깨어졌다.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그의 권세는 부서졌다. 따라서 성령은 그 승리를 증거하실 것이며, 승리를 통해 얻은 생명을 증거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으며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어두움은 보다 더 힘센 존재에 의하여 쫓겨났으며 빛에 의하여 추방되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요일 4:4)는 점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다.

And so the Spirit's witness, testimony is that of the victory that you and I can know today in and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don't have to be held in the power of darkness, in the grip of Satan. But we through Him have been set free. Now Jesus said,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여러분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와 사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I have yet many things to say un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16:12).

I wonder what those things were. Paul the apostle, writing to the Corinthians, said that he wanted to give them meat but they still had need of milk. They weren't able to really take solid spiritual food. Like babies who needed to be fed with milk because they weren't yet capable of digesting stronger meat.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고 싶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젖이 필요하다. 그들은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니 보다 더 단단한 식물은 소화시킬 수 없었던 탓이다.

Jesus had still a lot of things to say but they just weren't yet mature enough where He could share them with them. He knew that it would shatter them if He would reveal them at that time. So the Holy Spirit, He will come and He will then begin to reveal these things to you. 예수님은 아직도 할 말씀이 많으셨지만, 저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없었다. 만일 그 때 그런 말씀을 다 하신다면 저들은 혼비백산할 것임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Through the New Testament, through the epistles, we have those things that the Holy Spirit shared. The things that they weren't able at that point to receive. And so later on, the Holy Spirit came and as Jesus said, “I have many things to say un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서신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후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Howbei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i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but whatsoever he shall hear, that shall he speak: and he will show you things to come (16:13).

Actually,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Holy Spirit showing John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come. Things of the future. Paul the apostle wrote a lot about the coming antichrist and the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the rapture of the church. These things, Jesus said, you're not able to bear now but the Holy Spirit, He's going to teach you these things and He's going to show you the things to come.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장래의 일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실 것이며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For He shall glorify Me: for He shall receive from Me, and He will show it unto you (16:14).

In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of Acts, as Jesus now some forty-three days later after the fifteenth chapter here, just before He ascends into heaven, He is talking to His disciples. Luke tells us, “The former treatise [that is, the gospel of Luke] have I made, O Theophilus [a friend of Luke's to whom he is writing],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that He was taken up.” So all of the things that Jesus taught and all, until His ascension or before His ascension are found in the gospel of Luke. Of all the things that Jesus did and taught,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 of Jesus until His ascension. But “after that [after His ascension] he through the Holy Spirit had given commandments un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Acts 1:1,2).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언급이 있다. 사도행전 1장은 요한복음 15장의 사건이 있는 지 43일쯤 후 즉 예수님 승천 직전에 대한 기록이다. 누가의 말을 들어보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는 누가복음을 가리킨다]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 1:1,2). 그러므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그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천 후에는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하셨던 것이다.

That's exactly what Jesus is saying here. “I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you can't bear them now. But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And so after His ascension, the Holy Spirit came to guide them into all truth and to show them things to come as the Holy Spirit would receive from Jesus and impart unto them. Jesus then said, 위의 내용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러므로 예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이다. 성령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see me, because I go to the Father (16:16).

He said,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ohn 14:2,3). A little while, and you're not going to see Me, I'm ascending to the Father. I'm returning to the One who sent Me. But you will see Me.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2,3).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Then said some of his disciples among themselves, What is this that he is saying unto us,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see me: and, Because I go to the Father? They said therefore, What is this that he saith, A little while? we cannot tell what he is saying (16:17,18).

I'm sure that this happened a lot. That Jesus would speak about these things they just didn't understand and they get together and say, What does He mean now? What's He talking about now? I don't understand this. And so they were in this little huddle, sort of wondering just what is He saying to us. They still could not accept the fact that He was going to die. They still did not understand fully what His ascension into heaven would mean and their being gathered together with Him again in the heavenly kingdom.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수군거렸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에 대한 것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분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Now Jesus knew that they were desirous to ask him, and He said unto them, Do you inquire among yourselves of what I said,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ou shall see me?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at you're going to weep and lament, but the world will rejoice: you will be sorrowful, but your sorrow shall be turned into joy (16:19,20).

When you see Me hanging on the cross, when you see Me dying, when you see Me being put in the tomb, you're going to have sorrow. You're going to weep and have lamentations. But the world will be rejoicing. But your sorrow is going to be turned into joy. The joy of the resurrection. You will see Me. The joy of the resurrection.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되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And then Jesus gave an illustration.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셨다.

A woman when she is in travail hath sorrow, because her hour is come: but as soon as she is delivered of the child, she remembers no more the anguish, for joy that a man is born into the world (16:21).

How quickly the pains of birth are forgotten with the rejoicing of the new life, the child that has come into the world. The Jews believed that the present age of man was going to end in a great cataclysmic judgment. And they often referred to this great cataclysmic judgment as the earth being in travail. Going through the painful experience but after this painful travail, it's going to come into the truly new age. The kingdom of God, but it would be preceded by this period of great tribulation. And so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we find this train, this thought of the tribulation, the great tribulation that is coming upon the earth. Isaiah describes the cataclysmic things that will happen as does Joel and Jeremiah. And Daniel speaks about the time of tribulation that is going to come. But they are the birth pangs. The travail that will lead into the kingdom age, the glorious kingdom of God and His reign over the earth. So Jesus picks up this analogy that was used by the Jews of the earth's travail. And so you're going to be filled with joy when you see the new life, the resurrected life.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신속히 잊혀지는지 모른다. 유대인들은 이 인간 시대가 큰 재난의 심판을 받은 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그 큰 재난의 심판을 가리켜 이르기를 '지구에게 미칠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곤 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진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환란에 대한 얘기가 연거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상에 임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요엘과 예레미야 뿐 아니라 이사야도 장차 발생할 재앙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도 장차 닥칠 환란의 때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해산의 고통에 해당할 것이다. 왕국 시대로 이어질 고통인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그분이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으로 이어질 고통인 것이다.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에 닥칠 환란에 대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비유를 인용하여 가르치신 말씀이다: 새 생명을 보게 될 때, 부활 생명을 보게 될 때 너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And you therefore have sorrow now: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r heart will rejoice, and your joy no man can take from you (16:22).

Because it is the joy in the Lord, not in circumstances. If our joy were in the circumstances, man can take it from us because our circumstances can change. But the joy is in the Lord and our relationship with Him is a constant. It doesn't change and thus, the joy is a constant. No man takes it from you.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기쁨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와 주님이 맺은 관계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 누구도 그런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And in that day you shall ask me nothing (16:23).

They've been asking Him all of these questions. It's been a time of questioning. They've been asking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And all of these different questions. "In that day you will ask me nothing." That is, you won't be questioning Me.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그분께 하곤 했다. 질문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갖가지 질문을 제기하곤 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질문의 시대가 끝이 난다는 얘기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atsoever you shall ask the Father in my name, He will give it you (16:23).

Now He's talking about this relationship that He is bringing to us with the Father. "Whatsoever we ask the Father in His name, He will give it to us." And he said,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분으로 인하여 맺어질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분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Hitherto you have asked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shall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 (16:24).

The prayer. The access that we have is through Jesus Christ. I would not dare to approach God apart from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The glorious thing is that I can come to the Father through Him. Paul tells us,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and that's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니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Even the Jews knew how unapproachable God was. They were reminded of it everytime on Yom Kippur when the priest would go into the holy of holies. He only was allowed into the presence of God, that Shekinah within the holy of holies. The common person would not dare to enter in. You remember in the time of David, even when the ark of the covenant was being returned to Jerusalem, when it was on the cart and the cart began to tip and a couple of fellows reached out to steady it and they died just because it was the ark of the covenant, it was holy. Man could not approach God because of sin. But through Jesus Christ, I can approach the Father.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는 유대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속죄일(욘 카푸르)을 당할 때마다 그런 사실을 상기하곤 했다. 그 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허용되었다. 지성소 안에는 쉼기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일반인은 감히 그리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여러분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다. 마차에 실어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 마차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 떨어지지 않게 하려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언약을 담은 궤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 불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The scripture Hebrews said, “Therefore let us come boldly to this throne of mercy, that we might receive grace” (Hebrews 4:16). I can come boldly now to God through Jesus Christ. He has brought me and given me access. And whatever I ask the Father in His name, He promised that He would do it that my joy might be full.” And then Jesus said,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나에게 그런 권한을 갖다 주셨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며 따라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in proverbs (16:25):

Or in parables. The word in the Greek is the same word translated “parables.”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이 단어에 대한 희랍어는 “비유”로 번역된 말과 동일하다.

but the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speak to you in proverbs or parables, and I will show you plainly of the Father. In that day you shall ask in my name: and I don’t say to you, that I will pray the Father for you (16:25,26): 그러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나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대한 일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 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16:25,26).

Actually, you don’t have to ask Me to ask the Father. 사실상,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 드리 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you have believed that I came out from God (16:27).

Jesus is saying, You don’t have to ask Me to ask the Father. You can just ask the Father because the Father loves you. What a glorious realization. God loves me. We think so often wrongly that God is sort of austere, fierce, unapproachable and that Jesus sort of persuades God to see it our way or to love us or to acquiesce to our desires. No,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There was this breach between man and God because of sin. God wanted that breach to be removed so that you could know Him. So that you could fellowship and know His love. And so He sent His Son Jesus to take your sins and the penalty of your sins, to die in your place. That was God’s plan to open the door so that you could know what it is to fellowship with Him.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 드리 달라고 나에게 청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말이다. 하나님은 엄하고 지독하고 접근 불가한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만들거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만들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상상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것은 다 그릇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듯 장벽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장벽이 제거되어, 여러분이 그분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여러분의 죄와 형벌을 가져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 놓으심으로써, 그분과 교제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As John said,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declare unto you, that you might have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And these things we write unto you, that your joy may be full.” And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God, and yet we are walking in

darkness, we lie, and we're not telling the truth: But if we will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one with the other [that is, with God], as the blood of Jesus Christ cleanses us from all sin" (1 John 1:3,4, 6,7).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3,4,6,7).

That's what it's all about. God's love for you and His desire to fellowship with you, and thus making the provisions so that could be possible. Jesus taking our sin, dying in our place, opening the door that I can come to the Father through Him.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Now if Jesus is saying that it isn't necessary to even ask Him to ask the Father, then where does that put the intercession of Mary or the saints? You see, if I can come directly to the Father, I don't need Mary's intercession. Nor do I need the saints. Jesus is saying, You don't even need mine. “I don't say to you, that I will pray the Father for you: Because the Father loves you, and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believed that I came out from God.” Because of y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your trust in Him, God just loves you. Because you believe that Jesus came from God to save you from, God just loves you. Oh that we would realize the love of God towards us. 이제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려고 내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상, 마리아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직접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마리아의 중보기도는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치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도 필요치 않다는 의미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진저.

And so Jesus is now telling them plainly, this is what it is.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I came forth from the Father, I have come into the world (16:28):

“I have come from the Father, I have come into the world.”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세상 속으로 들어왔노라.”

and I am now going to leave the world, and go to the Father (16:28).

Lord, where are You going? He's telling them very plainly. I'm going to the Father.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은 여기서 명백하게 답을 하신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His disciples said, Oh, now You're speaking plainly, no more in a proverb. Now we are sure that You know all things (16:29,30),

They had been saying, What does He mean? You're going to see Me and then you're not going to see Me. What's He talking about? Now as He talks to them about the very things they were asking questions among themselves, they say,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You knew what we were discussing over there in our little corner. Now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그들은 줄곧 이런 질문을 던져 왔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말이다. 주님은 지금 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저쪽 구석에서 논의하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우리가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and You do not need that any man should ask thee (16:30):

We don't have to ask You the questions. You know our questions before we ask them. 우리가 당신께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벌써 당신은 우리의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by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orth from God (16:30).

We believe that You are God incarnate. You've come forth from God. 우리는 당신이 성육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Jesus answered them, Do you now believe (16:31)?

Much like Peter. When Peter said, Lord, I will die for you. Jesus said, Will you die for Me? They say, Lord, we now believe. And He said, Do you now believe? 이는 베드로의 경우와 흡사했다. 베드로가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여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이제 믿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Behold, the hour is coming, yes, it is now come, that you shall be scattered, every man to his own, and you shall leave me alone (16:32):

When He is arrested, they're going to be scattered. The scripture prophesied, "Smite the shepherd, and the sheep shall be scattered" (Zechariah 13:7). And when Jesus is crucified, they are shattered and scattered. "You will leave Me alone," and He said, 그분이 사로잡히고 나면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예언한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슥 13:7).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저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혼자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16:32).

Never alone. Never alone. You are never alone, you who have faith in Jesus Christ. He's with you.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20). And so Jesus said, 결코 혼자가 아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These things I have spoken unto you, that in Me you might have peace (16:33).

Remember the end of the fourteenth chapter?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ohn 14:27).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ight have peace." 14장 말미의 내용을 기억하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In this world you're going to have trouble, you're going to have tribulation (16:33):

It's going to be tough. It's going to hate you. They're going to put you to death and think that they're doing God a service. "In the world, you'll have tribulation:"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16:33).

As we mentioned earlier this evening, Jesus through the cross defeated Satan and the power that Satan has over you. The only power that Satan can exercise over you now is that which you allow him to do.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Satan has been dethroned. But you remember in the Old Testament, the case of King Saul when he failed to obey God, God rejected him from being the king over Israel. And God sent Samuel down to the house of Jesse to anoint David to be God's anointed king over Israel. But Saul was still on the throne. David was the anointed king. Saul was on the throne. The kingdom belonged to David but Saul was reigning. And Saul did his best to destroy David so that he could not reign. But God's

purposes were accomplished and Saul was deposed and David came to the throne. 오늘 저녁 시간 초두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과 그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패퇴시키셨다. 이제 사단은 여러분의 동의 하에서만 여러분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사단이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의 지위로부터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보좌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권좌 위에 있었다. 나라는 다윗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여전히 사울이 하고 있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파괴 공작을 일삼았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You have sort of a similar situation. Jesus now is the rightful King over the earth. He has been anointed King.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lness thereof" (Psalm 24:1). But at the present time, Satan is still on the throne but not rightly. The power that he now exercises is usurped power. He seeks to hold by the dent of force that which is no longer his. But when we as a child of God come against the force and the power of Satan in the name of Jesus, through the victory that Jesus has wrought, Satan has to yield. He cannot hold on. He must yield to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 So that the weakest child of God through Jesus Christ has authority and power over Satan and over the forces of darkness.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상의 정당한 임금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시 24:1).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권좌가 아니다. 그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세는 탈취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꺾여진 권세를 고수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와 권력에 대해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할 경우, 예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주장할 경우, 사단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단의 권세와 권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As Martin Luther wrote, The prince of darkness grim, we tremble not at him, one little word will fell him. And that is the name of Jesus. He must submit to the authority of the name of Jesus because Jesus is God's appointed and rightful King. 마틴 루터가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 어두움과 흑암의 임금을 인하여 무서워 떨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마디의 말이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정당한 임금이기 때문이다.

Now we have entered the kingdom of God by receiving Jesus as our King. And thus, being a citizen of the heavenly kingdom, Satan has no authority or hold or power over you unless you allow him to. He would like you to think that you're still under his power. He would like to come and scare you and sort of bully you. But you need to recognize your place of authority and victory and power in Jesus Christ. Yours is the victory. All you have to do is come against Satan's powers in the name of Jesus and they must flee. "Resist the devil," the scripture said, "and he will flee from you" (James 4:7). He has to. That's one of your rights as a child of God.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이 된 여러분을 사단은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사단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이 아직도 사단의 권세 하에 있다고 오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며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권세와 권위를 얻은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그는 여러분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다. 사단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권세이다.

Father, we thank You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and in the world. We thank You for the

victory that we have through Jesus Christ. We thank You, Lord, for the time that we can spend together as we study and learn more about Your love for us. Your plan for our lives. Your will, that which You would have us to be and that which You would have us to do as servants of Jesus Christ. So Lord, again, we present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that You might use us however You desire to bring glory unto the name of Jesus, our Lord. In His name we pray, Amen.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승리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품성과 과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시 한 번 산 제물로 드리오니, 당신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